

“신인 계약금·연봉 상한 폐지...스폰서 계약 풀어줘야”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베드민턴협회 문제점 광주·전남 정치권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서툰 여제 안세영’의 ‘작심발언’을 계기로 스포츠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안세영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국실업베드민턴연맹의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등 선수에게 불합리한 각종 문제점에 주목받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베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과 대한베드민턴협회 간 갈등과 관련, 12일 “안세영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살 안세영은 실력과 인성, 용기를 갖춘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청년의 정당한 주장이 ‘낡은 질서’ 속에 갇혀 버린다면 세상 누가 용기를 내어 소리치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세영의 고향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사회관계장서서비스에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는 안세영 선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베드민턴협회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지적하며 여론스펙트럼 못하다고 비판했다.

강수훈(민주·서구1) 광주시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풍암초,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한 광주의 딸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의 기쁨을 뒤로 하고 협회의 부실한 지원과 부당한 관행에 대해 목소리

를 냈다.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체육회 차원에서라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거론한 제도상 문제는 한국실업베드민턴연맹의 신인 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다.

안세영은 “광고가 아니라도 베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 있다. 계약금은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 6000만원, 고졸 선수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안세영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에 걸맞은 조항은 아닐 수 있다.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뒤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아깝지 않나 싶다”며 올림픽 출전권 제한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베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 베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했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같은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2002년 2월생인 그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베드민턴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드민턴계에서 이러한 대립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다.

그런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계기로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이에 상소하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19년 10월 현재의 규정을 만들었다. 기존보다 남자는 3년 낮게 설정하면서 여자는 27세로 두 살 낮았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2024 파리올림픽 베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문수 의원 “순천대, 전남의대 설립 공모 참여해야”

불참시 유치확률 0% 전략전환 촉구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에 예산에 참여하지 않고 결승전만을 노린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예선전 없이 결승전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선 없는 결승 참여는 오히려 편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레갑) 국회의원이 국립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껏 순천대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한편, 국립의대 설립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략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껏

럼(전남도의)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전남도가 단일 의대를 선정한다면 유치 확률이 50%로 높아지고 순천·목포대 공동의대 및 순천·목포대 모두 의대를 설립한다면 66%로 유치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썼다.

그는 “순천대 의대 유치가 안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분노한 시민들 표를 얻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짐을 싸 떠나면 그만”이라며 “그러나 전남 동부권 도민과 순천 시민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순천대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올렸다. “순천대 총장과 관계자들도 민의 공모에 응하지 않아 탈락한다면 정치인들 탓을 하고 뒤늦게 후회해야 돌아킬 수 없는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 “다만, 공모사업의 룰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민주성에 충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썼다.

김문수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군가 외쳐주지 않으면 모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표명만 만큼 전략을 바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 지정한다

30일까지 희망 의료기관 접수...통역 활동가 등 무료 지원

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을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은 외국인 주민이 의사 소통 장벽, 불친절한 서비스, 과잉진료 등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안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희망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의사소통 및 의료서비스 2개 분야 지정요건 충족표 등 서류를 광주시 외국인주민과(062-613-164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정 요건 중 의사소통 분야는 통역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시설 내 외국어 설명서·안내표기 등 설치, 외국어 정보 제공 누리집·SNS 운영 등이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금지 및 친절한 서비스 제공, 적정 진료 및 합리적 비용,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보험수가에 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광주시는 서류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총 20개소를 선정,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친화병원 현판·지정서 제공, 광주시 누리집·SNS 등을 통한 의료기관 홍보,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대상 의료비 지원, 광주시 의료 통역 활동가 무료 파견 지원, 우수기관 시장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언어소통 등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외국인주민 친화적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확대시켜 ‘포용 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4~15일 택배 쉬는 날...쿠팡·컬리·편의점 등 정상 운영

전국 택배업체들이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택배 쉬는 날’인 14일부터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급한 택배를 받아야 하거나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14~15일 택배 배송을 피해야 한다.

단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과 SSG닷컴(씩닷컴), 컬리 등 업체와 GS25, CU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는 평소대로 배송한다.

12일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

체국 소포·표준택배에 따르면 14일(수요일)은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하지 않는다. 배송은 16일부터 재개된다.

택배사들은 13일과 14일에는 배달 지연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제한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역,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귀금(401206-2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쌍봉로 316, 108동 1502호 (동막동, 한려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귀금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가 정한 순천지법 2024-단277호로 신청하여 2024년 8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기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8월 13일

· 상속인 : 부명희(710817-2XXXXXX) 여수시 장성2길 52, 가동 805호 (안산동, 해군배필리오피스텔)
· 신고기간 : 2024. 8. 13. ~ 2024. 10.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부명희의 주소

태양광발전사업 주민 의견 청취공고

본시(사업) 제7호 제5회 「태양광발전사업」 제4호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의 개요

- 발전소 유형: 전압상도 보강공유인 유선인 60kw
- 발전소 위치: 전압상도 보강공유인 유선인 31-330, 32, 33, 34-1, 34-2, 34-3, 80-5, 76, 79, 80-1, 80-6, 81, 82, 92, 192-3, 92-4, 92-5, 92-9, 92-10, 104, 92-8
- 발전소 면적: 88,698㎡ / 88,698㎡
- 공고 기간: 2024. 8. 13. ~ 2024. 8. 19 (7일)
- 사업기타 연일일: 2025. 01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 용량: 60kw, 7,697.75kw
- 용량: 999.6kw / 5개소, 2,999.5kw / 1개소

3. 발전사업의 이면소재지

발전소명	상업인	대표자	용량 (kw)	사업유형
창수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창수발전	김광수	2,999.5	사업유형 기간
비애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비애발전	김광수	999.5	
상곡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상곡발전	김광수	999.5	사업유형 기간
명상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명상발전	신동철	999.5	사업유형 기간
안평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안평발전	이병만	999.5	
창원발전1호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창원발전	김광수	999.5	

4. 의견제출방법

☎ 061.333.9360 FAX: 061.333.4653
이메일: syk@cdpower.co.kr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 제출 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가합니다.

2024. 8. 1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경권(330425-1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오천2길 59(오천동)

피상속인 망 김경권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가 정한 순천지법 2024-단275호로 신청하여 2024년 8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기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8월 13일

· 상속인 : 강삼덕(370827-2XXXXXX) 여수시 오천2길 59(오천동)
· 신고기간 : 2024. 8. 13. ~ 2024. 10. 2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강삼덕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보호 공고)

주식회사 이앤에스전력(“갑”)과 주식회사 이앤에스전력(“을”)은 2024년 08월 12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명입)의 일부(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번호: 제620212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본회사의 분할된 부분에 대한 [을]의 자산 및 부채 등 권리의무 일체를 [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개인 분등은 본공고 게재일 일주일 1개월 내에 관청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갑” 주식회사 이앤에스전력
광주광역시 북구 문선로74번길 61, 1층 (문흥동)
대표이사 이서린

“을” 주식회사 이앤전력
광주광역시 북구 문선로74번길 61(문흥동)
대표이사 최윤희

정정공고

본지 2024년 8월 8일자 게재된 ㈜명인인앤지과 ㈜서흥전기의 분할합병공고 중, ㈜명인인앤지의 ‘대표이사 강원중’을 ‘대표이사 강원중’으로 정정공고 함.